
임진왜란기 조선과 건주여진의 교통로 복원

- 『건주기정도기』를 중심으로 -

박 정 민

(전북대학교)

머리말

I. 만포~혼강 일대의 경로

II. 부이강 입구~피알라성의 경로

맺음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과제번호)(NRF-2016S1A5B5A07919668).

● 투고일: 2017. 11. 22. ● 심사일: 2017. 12. 1. ● 게재확정일: 2017. 12. 1.

www.kci.go.kr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임진왜란기인 1595년(선조 29) 12월부터 1596년 1월 까지 조선과 건주여진을 왕래했던 申忠一의 교통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성격을 밝히기 위해 신충일이 피알라(佛阿拉; Fe Ala) 성에 다녀온 후 작성한 『建州紀程圖記』를 면밀히 분석하여 왕래한 교통로를 복원하고, 이를 지도에 표기하였다. 그 경로는 만포-集安-小板嶺-新開河-北甸子-富爾江-旺清門-蘇子河-火洛嶺-小里川-新賓 二道河子(피알라성)이다.

이 작업을 통해 당대의 교통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 공간에서 보이는 지명 및 우리 역사와의 관련성, 건주여진의 세력 분포 등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고구려의 교통로와 연계되는 점을 ‘시간적’·‘공간적’으로 종합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누르하치의 관계 및 조선의 대외교통로를 연구하는 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주제어 : 임진왜란, 신충일, 건주여진, 건주기정도기, 누르하치, 교통로, 고구려, 남도, 북도, 구글어스(google earth)

머리말

建州女眞은 遼寧省 新賓縣과 桓仁縣, 吉林省 集安市 일대를 중심으로 거주하였다. 이들은 지리적 위치 및 세력의 강성함 등 때문에 다른 여진 세력 보다 조선과 명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았다. 조선과 명 모두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심을 기울였고, 『조선왕조실록』과 『명실록』, 『撫安東夷記』, 『吏文』 등에 상당한 관련 기록을 남겼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건주여진의 정치체제, 사회구조, 풍속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그런데 이들이 거주한 지역 혹은 어떠한 교통로를 이용하여 명과 조선에 왕래하였는지 등의 규명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누르하치(努爾哈赤; Nurhaci)가 흥기할 때 지금의 遼寧省 新賓縣의 叻阿拉(佛阿拉; Fe Ala)성에 웅거한 사실은 익히 알려졌다. 하지만 누르하치 이전의 건주여진 주장들은 이곳뿐만 아니라 桓仁의 五女山城과 그 일대, 심지어 조선의 함경도 회령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즉, 건주여진의 중심지는 자신들의 필요 혹은 명과 조선의 압박 등 외부요인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건주여진의 중심지가 빈번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선 혹은 명에서 수집한 지리 정보는 각 시대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기반으로 한 후대의 기록은 건주여진에 직접 다녀오지 않았던 조선과 명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연구자들도 건주여진의 정확한 위치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건주여진의 교통로에 정확한 기준점을 제공하는 자료가 있다. 바로 임진왜란 기인 1595년 12월부터 1596년 1월까지 申忠一이 叻阿라에 방문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建州紀程圖記』(이하 『도기』로 약칭)이다. 이것은 누르하치의 興起 시기에 대한 외부인의 기록이기에 많은 학자의 관심을 받았다.

『도기』가 처음 발견된 것은 1936년으로, 稻葉岩吉과 이인영이 2년 터울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도기』의 작성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함과 동시에 신충일의 관력과 가문, 만포에서 피알라에 이르는 노정을 대략적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피알라성의 구조와 건물의 위치, 가옥 배치뿐만 아니라 구성원과 부락의 분석 등을 통해 초보적으로 八旗制度和 연결을 시도하였다.¹⁾

稻葉岩吉은 1937년에 新京(현 장춘)의 建國大學에 교수로 부임한 것을 기회로 피알라(舊老城)가 있는 興京 일대를 정밀하게 조사하였다.²⁾ 주목할 점은 그가 중심이 되어 피알라성과 汗王殿, 中城의 北門址 등 건축지를 일부 발굴하고, 실측한 것이다. 또한, 당시 지도에 신충일의 행로를 대조한 것이다. 물론 동의할 수 없는 구간도 있지만 처음으로 지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많은 학자들이 누르하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도기』를 필수적으로 이용하였다. 먼저, 적극적으로 『도기』를 이용한 것은 일본 학자들이었다. 旗田巍는 八旗制度의 성립과정을 살펴봄에 『도기』에 기재된 부락의 규모 등을 통해 戶口를 계산하였다.³⁾ 安部健夫도 팔기의 기원을 논의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 농장의 소유 형태, 부역 실태 등을 근거로 旗人の 거주양태와 토지운용 등을 분석하였다.⁴⁾

江嶋壽雄은 사회경제사의 관점에서 『도기』를 이용하였다.⁵⁾ 특히, 그는 건주여진의 가산(gašan)을 네 종류로 분류한 뒤, 『도기』에 근거하여 유

-
- 1) 稻葉岩吉, 1937, 「申忠一書啓及び圖記」 『靑丘學叢』 29; 이인영, 1939, 「申忠一의 建州紀程圖記에 對하여」 『진단학보』 10(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 2) 稻葉岩吉, 1939, 『興京二道河子舊老城』, 建國大學校出版部.
 - 3) 旗田巍, 1940, 「滿洲八旗의 成立過程에 關する一考察」 『東亞論叢』 2.
 - 4) 安部健夫, 1971, 「八旗ニル의 研究」 『清代史의 研究』, 創文社.
 - 5) 江嶋壽雄, 1944, 「明末滿洲におけるガシヤンの諸形態」 『史淵』 32; 1952, 「勅書(エジェヘ)と屯莊(トクソ)-清朝勃興期の社會經濟史的概觀-」 『西日本史學』 2.

사성과 차이점을 통해 가산의 특징을 밝혔다. 한편, 三田村泰助는 『도기』를 통해 누르하치기의 강역을 밝혔다.⁶⁾ 그는 만주어를 활용하여 계기적으로 지명을 연결하였고, 세밀하게 위치를 비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⁷⁾

한국에서 이인영의 연구 이후 본격적으로 『도기』를 이용한 학자들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유지원은 퍼알라를 포함한 후금의 도성들을 살펴보았다.⁸⁾ 이때 『도기』를 주로 이용하여 퍼알라성의 경관과 구조, 누르하치와 슈르가치(舒爾哈齊; šurgaci)의 가옥 배치와 구조, 위계,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김선민은 당시 명과 후금,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 『도기』를 이용하여 더욱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분석하였다.⁹⁾ 최근 장정수는 신충일이 과견된 목적을 조선 조정의 ‘배후 교섭’이었음을 밝히고, 이후의 역할 등을 설명하였다.¹⁰⁾

중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劉廣銘은 신충일의 여진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¹¹⁾ 刁書仁은 건주여진의 사회구조를 검토하여 신충일의 사행으로 한동안 단절되었던 건주여진과 조선의 외교가 재개된 점에 주목하였다.¹²⁾ 聞家禎은

- 6) 三田村泰助, 1961, 「朝鮮側史料より見た清初の疆域」, 『朝鮮學報』 21-22; 1965, 「清初の疆域 續—申忠의建州紀程圖記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36.
- 7) 하지만 대부분의 지명을 만주어로만 풀이하다보니 몇 구간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 8) 유지원, 2004, 「누르하치 興起時期 都城에 나타난 滿·漢文化의 相互作用」, 『명청사 연구』 22.
- 9) 김선민, 2008, 「명말 요동지역을 둘러싼 명-후금-조선의 삼각관계」, 『중국사연구』 55.
- 10) 장정수, 2016, 「16세기 말-17세기 초 조선과 건주여진의 배후 교섭과 신충일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25. 이외 『선조실록』에 기재된 부분을 번역한 자료도 있다.(이민환 지음/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1619년 심하 전쟁과 포로수용소 일기: 책중 일록』, 서해문집)
- 11) 劉廣銘, 2004, 「《建州紀程圖記》中的女真人形象」, 『東疆學刊』 2004年 04期.
- 12) 刁書仁, 2011, 「朝鮮使臣所見의建州社會-兼論後金建國前與朝鮮의關係」, 『滿族研究』 2011年 第02期.

『도기』에 대한 문헌학적 고증을 수행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료인지 강조하였다.¹³⁾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신청사를 주도하는 一群의 학자 중 한명인 Pamela Kyle Crossley는 신충일을 조선에서 온 현지조사자라며 『도기』의 내용을 통해 그가 왕래하던 당시에 팔기의 원형이 조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누르하치와 슈르가치의 가옥 구조, 배치, 신충일의 태도 등을 분석하여 양자의 역관계를 생생하게 묘사하였다.¹⁴⁾

선행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원 자료에 대한 사료적 가치와 그 내용 분석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피알라성의 구조, 배치 등과 누르하치 및 슈르가치의 가옥도를 분석하여 공간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보인다. 셋째, 『도기』에서 보이는 건주여진의 사회 구조와 관습 등에 집중하여 팔기제도의 성립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도기』의 97개조, 누르하치와 슈르가치의 가옥도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신충일의 왕래로에 대한 분석은 稻葉岩吉와 三田村泰助 외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들 간의 의견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도화 작업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렸을 뿐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신충일의 왕래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정설이 없는 신충일의 왕래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신충일이 이용한 교통로는 크게 만포에서 신개하를 따라 혼하에 합류하는 구간과 부이강에서 소자하를 따라 피알라성에 이르는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환인의 1595년 12월 25일에 신충일 일행이 유숙했던 羅下(현 北甸子鄉) 일대를 기준으로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신충

13) 閔家禎, 2014, 「《建州紀程圖記》文獻學研究」, 『蘭州教育學院學報』 2014年 第07期.

14) 패멀라 카일 크로스리(Pamela Kyle Crossley) 著/양휘웅 역, 2013, 『만주족의 역사: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돌베개.

일이 『도기』¹⁵⁾에 기재한 주요 지명을 현재 위치와 비교하여 분석한 후, 하루 분량씩 google earth에 표기하여 행로를 복원하겠다. google earth를 이용한 이유는 현지의 지형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어 다른 지도를 편집하는 것보다 유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국의 각종 문물지 등을 통해 주요 지점과 관련 유적지를 연결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저수지 및 도로 건설 등으로 지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1935년에 일제에서 발행한 1:100,000 지도(이하 『滿洲十萬分一地圖』)를 필요한 구간마다 이용하려고 한다. 그리고 현재 지명은 중국의 바이두 지도(www.map.baidu.com) 등에 기재된 명칭을 사용하겠다.

이처럼 신충일이 왕래한 도로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누르하치의 교통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 조선시대 대외관계사에서 시행되지 않은 방법으로, 『도기』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그동안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조선의 북방에 대한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 만포~혼강 일대의 경로

『도기』에는 산과 하천, 도로가 각기 다른 색깔로 그려져 있고, 【그림 1】에서 확인되듯이 지명과 함께 특이 사항을 注記의 형태로 지도의 곳곳에

15) 『建州紀程圖記』에는 세 가지 판본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정수, 앞의 논문, 2016, 133~134쪽에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판본 가운데 가장 후대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형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자료인 『建州探情記軸』를 이용하고, 다른 판본들을 참고하겠다 (<http://library.history.go.kr/dhrs/dhrsXIFViewer.jsp?system=dlib&id=SJ0000015573>).

기재하였다.¹⁶⁾ 『도기』의 각종 지명과 지형 등을 통해 그 교통로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문물지 등에 기재된 유적지를 통해 논지를 보완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1595년 12월 22일부터 동월 25일에 신충일 일행이 新開河와 渾江, 富爾江의 합류처에 이르는 구간을 살펴보겠다.



【그림 1】『建州探情記軸』의 만포진과 1일차 경로

신충일 등의 12월 22일 일정은 【그림 1】과 같다. 현재의 지도와 비교해 보면 『도기』는 산줄기와 하천 등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1】을 보면 성곽과 함께 皇城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현재의 집안시 중에서도 國內城을 의미한다. 주지하듯이 국내성은 네모꼴이고, 동서 방향은 압록강의 물 흐르는 방향과 대체로 일치한다.¹⁷⁾ 즉, 실제 유적과 【그림 1】의 황성이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도기』의 중간에 車踰嶺과 梨坡 등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고갯길, 加也之川 등의 하천이 표시되어 있다. 신충일 등은 12월 22일에 만포에서 강

16) 신충일은 흑색은 산, 청색은 물, 붉은 색은 길로 구분하였다.

17) 여호규, 1998, 『高句麗城 I - 鴨綠江中上流篇』, 國防軍史研究所, 54쪽.

을 건너 압록강 변을 따라 황성을 지났다. 이곳에서 가야지천을 건너 仇郎塔(哈)洞에서 방향을 바꿔 仇郎哈川을 거슬러 올라 者皮洞에서 노숙하였다.

현재의 지도를 보면 만포시는 두 군데에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어 신충일 등이 정확히 어디에서 도강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위해 「滿洲十萬分一地圖」를 참고하면 【그림 2】와 같이 만포성의 형태가 비교적 뚜렷하게 남아 있다.¹⁸⁾ 따라서 현재 만포역 일대가 조선시대 만포진의 중심지였고, 신충일 등은 이곳에서 강을 건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1933년 「滿洲十萬分一地圖」의 만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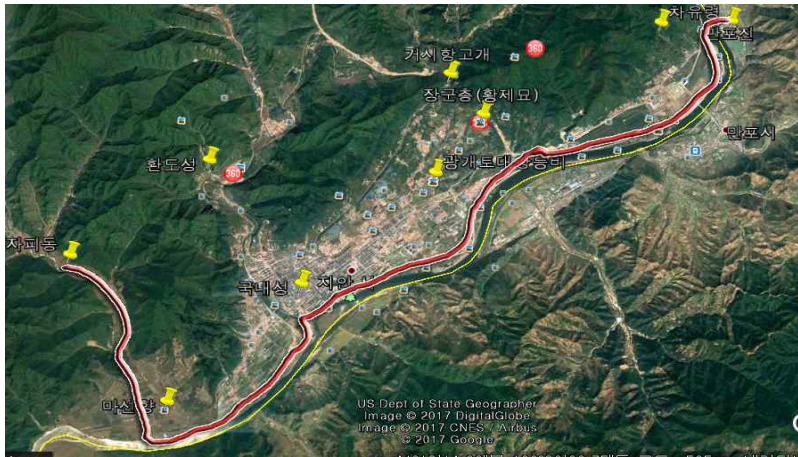
한편, 【그림 1】에서 보이는 皇帝墓와 碑는 각각 將軍塚과 廣開土大王 碑를 의미한다.¹⁹⁾ 이곳과 연결된 巨柴項古介는 현재에도 集安에서 通化로 연결되는 G303 도로이다. 이 도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동북쪽으로 방향을 틀면 臨江으로 갈 수 있다. 『도기』에 의하면 이파의 胡人이 귀순할 때 이 길로 왕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에 이 길은 통화 혹은 임강

18) 「舊韓末韓半島1:5萬地形圖」의 만포진에서도 【그림 2】와 동일하게 만포성의 형태가 그려져 있다. 이 지도는 1:50,000이기 때문에 【그림 2】보다 더 자세하다. 하지만 이 지도는 압록강 안쪽, 즉 한반도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조금 덜 자세하더라도 압록강 북부 지역까지 보여줄 수 있는 「滿洲十萬分一地圖」를 활용하였다.

19) 조법중, 2013, 「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지도와 능비문을 중심으로」,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방면에 거주한 여진인이 이전부터 널리 이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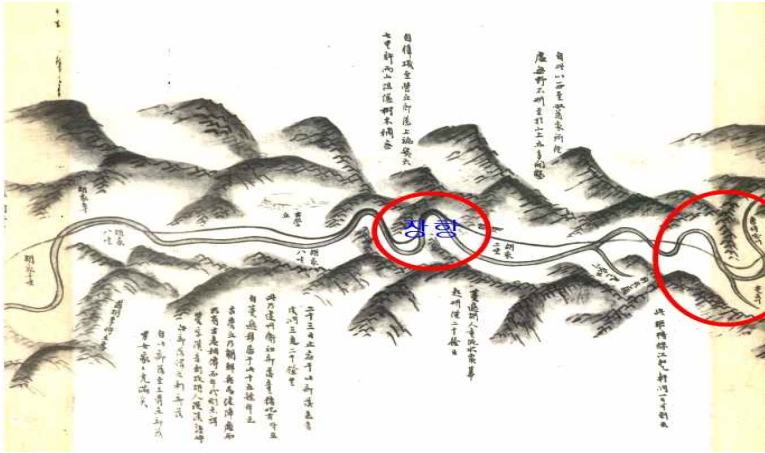
신충일은 통화로 가는 길을 이용하지 않고, 가야지천을 지나 구랑탐동에서 구랑합천을 거슬러 올라가 구랑합령과 만차령을 넘어 만차천을 타고 내려갔다. 일단 가야지천은 현재 국내성 서벽 바로 옆으로 흐르는 通構河를 의미한다. 실제로 【그림 3】에서도 확인되듯이 통구하의 서편에 산줄기가 『도기』와 같이 이어지고 있어 가야지천이 통구하임에 틀림없다. 주지하다시피 통구하를 5Km 가량 거슬러 올라가면 고구려의 丸都山城과 山城下무덤떼가 있다.



【그림 3】 12월 22일의 경로와 주요 거점(google earth 재편집)

신충일은 환도산성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고, 압록강변을 따라 서남쪽으로 더 내려와 지금의 麻線鄉인 구랑탐동에서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림 1】과 같이 구랑탐동은 압록강과 구랑합천이 합류하는 곳의 동쪽에 있고, 그 동쪽에는 가야지천 사이의 산맥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마

20) 이 길은 고구려 시기에도 널리 이용되었다. 따라서 약 1000년의 시간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집안과 통화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 2일차 경로

선향이 바로 구랑탐동일 가능성이 크다.

『도기』에는 신중일 일행이 22일에 구랑탐동을 지나 者皮洞에서 노숙하였다고 한다.²¹⁾ 그렇다면 자피동의 정확한 위치는 어느 곳일까? 【그림 1】을 보면 자피동은 蔓嶺嶺에서 압록강 쪽으로 내려오는 구랑합천(마선천)과 환도성 방향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합류처 앞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21) 『도기』에 의하면 자피동은 明朝의 辛亥年에 高山里를 입구할 때, 者皮船을 만들던 곳으로 여기에서 이름이 유래하였다고 한다. 신해년에 해당하는 연도는 1431년(세종 13), 1491년(성종 22), 1551년(명종 6)이다. 1431년과 1551년경에 조선과 건주여진 사이에 큰 충돌의 기록도 없었고, 양자의 교섭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때의 신해년은 1491년(성종 22)을 의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1490년(성종 21) 9월에 만포 첨절제사 허곤이 적 7명의 목을 베며 건주여진과 조선의 관계를 악화시킨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1491년부터 건주여진의 공격이 격화되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창주를 공격하였고, 6월부터 8월까지 건주여진이 이산, 창성, 벽동 등지를 공격하였다. 특히, 동년 8월에 여진인 200여 명이 만포의 고산리성을 포위하여 조선군과 전투를 벌였던 사실이 있다. 이때 조선군은 여진인 39급을 베었고, 적 가운데 익사한 자와 화살에 상하여 죽은 자도 80여 명일 정도로 조선에서 승전을 거두었다.(박정민, 2015, 「15세기 후반 建州女眞의 생존 전략-조·명 연합군의 정벌과 영향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4, 25~26쪽) 따라서 『도기』에 기재된 신해년은 1491년이라고 생각한다.

토대로 google earth를 통해 보면 半載溝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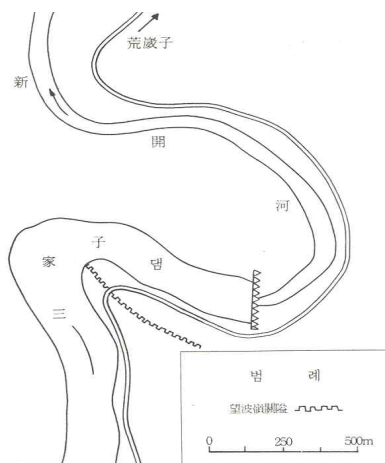
이곳은 지리적으로도 건주여진의 거점인 환인 일대에서 만포진성과 고산리로 나아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건주여진인이 者皮船을 만들어 침입하기 좋은 곳이다. 또한, 신충일은 22일에 노숙한 자피동을 만포진으로부터 50리 떨어진 곳이라고 하였다. google earth의 거리 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半載溝에서 만포성까지 약 21Km이므로 그 거리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²²⁾ 이를 종합하여 신충일이 12월 22일에 이동한 구간을 지도에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²³⁾

23일의 일정을 보면 【그림 1】의 왼쪽 부분과 같이 신충일 일행은 마선천을 거슬러 올라 大板岔村 방향으로 북진하였고, 여기에서 小板嶺(蔓遮嶺)을 넘어 蔓遮川을 따라 내려왔다.²⁴⁾ 蔓遮川은 이인영 등도 지적한 것처럼 新開河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환인 일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개하를 통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기』의 지형도²⁵⁾와 각종 지도를 통해 보더라도 신개하로 보는 것이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만차령의 위치에 대해 稻葉岩吉과 이인영, 三田村泰助는 大板嶺으로 보고, 이곳을 넘어 新開河로 진입했다고 보았다.²⁶⁾ 일단 【그림 1】과

-
- 22) 10리의 거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10리를 대략 4Km로 산정하였다. 산정 근거는 별고로 준비 중이다.
- 23) 본고에서 google earth에 표기한 길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루트를 추정한 것이다.
- 24) 이 길은 기경량이 지적인 바 있는데, 기경량은 고구려 대부터 이때 까지 환도와 국내 지역을 잇는 주요 교통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2016, 「4세기 고구려 '南道·北道'의 실체와 그 성격」 『한국문화』 73, 73쪽) 필자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한다.
- 25) 『도기』에 기록된 山系와 水脈이 실제 지형을 충실하게 기록한 것이라는 내용은 이미 앞의 논문들에서 논증되어 있다.(稻葉岩吉, 1939, 앞의 책; 三田村泰助, 1965, 앞의 논문)
- 26) 이인영, 1954, 앞의 책, 263쪽; 稻葉岩吉, 1937, 앞의 논문; 三田村泰助, 1965, 앞의 논문, 98쪽. 稻葉岩吉은 1937년의 논문에서 만차천을 葦沙河에 상당한다고 보았

같이 신충일 등은 만차천을 따라 내려왔고, 唐時哈古墓 옆의 하천을 따라 내려오다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唐時哈川과 합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쪽에서 신개하로 합류하는 末乙去川을 지나는 것이 보인다. 이 지형은 【그림 4】의 ○표시 부분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림 5】 망파령관애(장항) 위치도

만일 신충일이 대관령을 넘었다면 현재의 二灣溝子 방면으로 내려와서 신개하에 합류하는 길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림 4】의 표시 부분처럼 세 개의 하천이 합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기경량이 지적인 것처럼 약 20Km를 더 도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²⁷⁾ 여기에 『도기』의 注記에 “만차령의 위에 叢祠가 있어 胡인들이 여기를 지나는 자는 반드시 경의를

표한 뒤에 지나간다”고 하는 기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稻葉岩吉은 이때의 叢祠를 毋丘儉紀功碑로 추정하였다.²⁸⁾ 관구검기공비가 발견된 위치는 소관령을 넘어가는 길로, 【그림 7】에 표기한 부분 일대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구검기공비와 소관령의 길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즉, 신충일 일행은 고구려대부터 빈번하게 이용되었던 소관령을 넘

다.(1937, 「申忠一書啓及び圖記」 『靑丘學叢』 29, 5쪽) 하지만 1939년에 출판한 책에서는 신개하로 보고 있다.(1939, 앞의 책, 52쪽) 그가 갑자기 내용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다.

27) 기경량, 2016, 앞의 논문, 73쪽.

28) 稻葉岩吉, 1939, 앞의 책, 51쪽.

29) 魏毋丘儉紀功碑는 1906년에 집안현 소관차령의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

어 신개하로 간 것이다.

만차천은 서북향하여 지금의 中興村 옆을 흐르는 하천과 합류하는데, 이는 『도기』의 夫乙家川이다. 현재 이곳은 三家子 저수지에 수몰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胡家 2坐라 하여 건주여진의 거주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북쪽으로 전

진하면 불과 1Km 정도에 獐項(노루목)이라는 고갯길이 나온다. 여기를 넘으면 바로 하천을 따라 가는데 이곳에서 古營丘 부락까지 2~3번 급격하게 하천이 곡류하는 지점이 나타난다. 이 역시 『도기』와 마찬가지로



【그림 6】「滿洲十萬分一地圖」의 장항2(度嶺) 일대

지로 각종 지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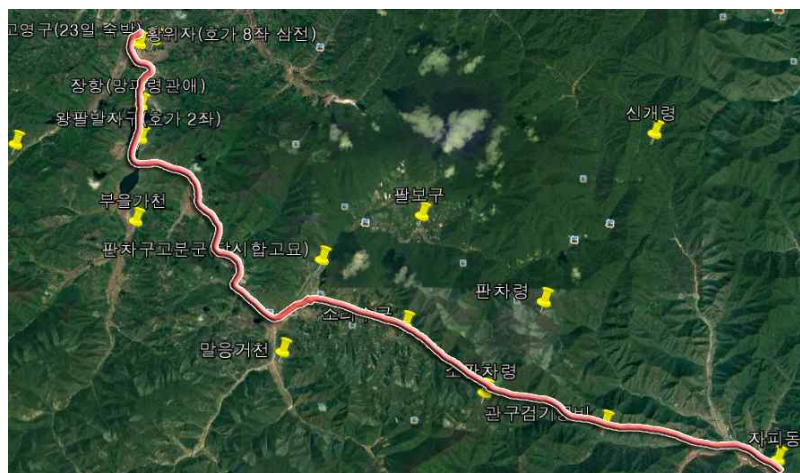
『도기』에는 장항과 고영구 부락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바로 “장항에서 (고)영(구)部落上端까지 겨우 6~7리이나 그 사이에 산이 많고 험하고 좁으며 수목이 조밀하다”는 기록이다.³⁰⁾ 이 장항은 고구려의 望波嶺關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망파령관에는 신개하가 흐르

었다. 정확한 출토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소관차령 일대에서 발견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鳥居龍藏, 1914, 「丸都城及び國內城の位置に就きて」 『史學雜誌』 25-7)

30) 一自獐項至部落上端幾六七里許 多山阻隘樹木稠密.

다가 여기서부터 협곡의 폭이 좁아지고 양 옆의 산도 깎아지른 듯이 험준해지는 곳에 설치되었다. 북쪽 산비탈은 높고 가파르는데, 아래로는 좁고 험준한 협곡이 내려다보이며, 높이는 약 60m이다.³¹⁾ 망파령관에는 혼하에서 신개하를 거슬러 집안으로 통하는 교통로상의 방어시설이다.³²⁾ 이것은 위의 기록뿐만 아니라 【그림 5】와 같이 관애의 위치도 장항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한, 현재 관애의 중간에 길이 끊려 있는데 이 역시 『도기』에 그려져 있다.

장항을 지나면 비교적 평지인 현재의 荒巖子村이 나온다. 이곳에 胡家 8座가 있었다고 하고, 위쪽의 언덕에 古營丘가 그려져 있다. 고영구는 방어상 요지이자 교통의 중요성을 가진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도기』에 의하면 이곳의 古老들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전에 조선의 兵



【그림 7】 12월 23일의 경로와 주요 거점(google earth 재편집)

- 31)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3,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76~78쪽.
 32) 여호규, 1998, 앞의 책, 105~108쪽. 위의 【그림 5】 망파령관에 위치도는 여호규의 지도를 재인용하였다.(1998, 앞의 책, 106쪽)

馬가 結陣했다고 한다. 조선에서 만포를 출발하여 환인 일대를 정벌한 것은 1433년(세종 15)과 1437년(세종 19), 1467년(세조 13)이다.³³⁾ 그러므로 셋 중하나 혹은 세 번 모두 이곳에서 유숙했기 때문에 여진인은 계속 이곳이 예전에 조선군이 주둔했던 언덕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신충일은 이처럼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서 23일에 유숙하였다.

24일에 신충일 등은 고영구를 출발하여 북향하였다. 그는 신개하 강변에 위치한 5~14호에 이르는 마을 4개를 지났다. 이후 獐項(度嶺)을 넘



【그림 8】 3~4일차 경로

어 蔓遮 부락에서 숙박하였다. 장항을 경령으로 보는 이유는 【그림 8】에 표시한 것처럼 ‘장항2’로 표시한 곳의 하천의 만곡과 산줄기의 방향이 【그림 9】의 지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33) 三田村泰助는 1437년의 정벌이라고 보았다.(1965, 앞의 논문, 103쪽) 이때 이 길을 이용한 것은 확실하지만, 다른 두 시기에도 이 길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필자는 3가지를 모두 상정하였다.

만차 부락은 120여 호가 거주하는 부락으로, 현재의 財源鄉 일대이다. 또한, 이곳의 추장은 여성인 椒箕(초기)였다. 만차 부락은 규모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도기』에 기재된 추장들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고, 아래에 한글로 초기(다른 판본에는 초키)로 기재되어 있다. 신충일이 피알라성에 도착한 이후인 1596년 1월 3일에 그녀는 누르하치의 명에 따라 童好羅厚·童亡自哈과 함께 신충일을 초청하여 연회를 베풀었다.³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초기가 추장에 올랐는지 알 수 없지만, 신충일 역시 이를 특이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글로도 기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신충일은 23일에 머물렀던 初部落(고영구)에서 만차 부락까지 1식 20여 리(50리)라고 기재하였다. 실제 初部落(황위자촌)에서 만차 부락(재원향)까지의 거리를 google earth로 산정하면 약 20Km로 얼추 일치한다. 그런데 稻葉岩吉은 황위자촌의 서북쪽에 위치한 台上鄉을 초부락으로 보았다.³⁵⁾ 일단 『도기』의 지형과 태상향은 맞지 않고, 초부락에서 태상향까지는 거리상으로도 약 13K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³⁶⁾

25일에 신충일 등은 만차 부락에서 서북진하여 新開河와 婆猪江(渾江)의 합류처에 이르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합류처 위쪽에 土城이 존재하고 이곳의 지명을 ‘王家(왕가)’라고 한 것이다. 完顏部의 만주어 발음 [wanggiya]를 한글로 전사한 것이 ‘왕가’이다. 신충일이 왕가를 지명이라고 하였으므로, 실상 왕가라고 표기된 곳은 건주여진에 소속된 완안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토성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은 선학들에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34) 初三日 酋胡 童好羅厚童亡自哈女酋椒箕請臣設宴. 奴酋所教云.

35) 稻葉岩吉, 1939, 앞의 책, <申忠一行程圖與現代實測圖對照>.

36) 三田村泰助 역시 거리가 맞지 않는다면 台上이 아니라 황위자촌으로 비정하였다.(1956, 앞의 논문, 102~103쪽)

지금까지 이 토성의 위치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학설이 있다. 和田淸은 『도기』가 두루마리에 그려져 있는 제약 때문에 북쪽을 실상보다 가깝게 그렸다고 주장하며 혼강 상류의 통화 방면으로 비정하였다.³⁷⁾ 반면 稻葉岩吉은 『도기』가 대부분 실제 지형을 그대로 그렸다고 주장하며 和田淸의 주장을 반박하고, 토성의 위치를 신개하와 파저강의 합류지점에서 멀지 않은 패왕조 부근의 古城址라고 주장하였다.³⁸⁾ 三田村泰助는 처음에 和田淸의 의견에 동조하였으나,³⁹⁾ 이후에 실제 지형을 참고하면 패왕조 일대가 토성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수정하였다.⁴⁰⁾

필자는 稻葉岩吉의 의견과 같이 토성은 패왕조산성 일대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도기』를 보면 일단 토성의 위치를 혼강이 신개하와 합류하기 이전에 산줄기의 양 갈래 안에 위치한 것으로 그렸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위치를 추정하자면 集安市 財源鎮 霸王村 일대로 보인다. 현재 이곳에는 토성의 유적이 남아 있지 않고, 石城인 霸王朝山城이 있다. 그렇지만 신충일은 『도기』에 이곳을 토성으로 기재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패왕조산성 아래에 토성이 있었으나 현재 유적이 파괴되었을 개연성과 신충일이 패왕조산성을 토성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자료가 있다. 바로 1930년에 발행된 『輯安縣志』에 의하면, 패왕조 산성 부근에 있는 土城子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八王朝(패왕조)江岸에 있다. 물에 잠기고, 모래에 덮힌 가운데, 예전에 數丈이나 되는 큰 돌이 있어 후에 동네 사람들이 가져다 집을 만들어서 흔적이 남지 않았다”⁴¹⁾고 한다. 이곳은 신개하 방면으로부터

37) 和田淸, 1954, 「滿洲諸部の位置について」 『東亞史研究(滿洲編)』, 東京國立書院, 578쪽.

38) 稻葉岩吉, 1939, 앞의 책.

39) 三田村泰助, 1961, 앞의 논문.

40) 三田村泰助, 1965, 앞의 논문.

41) “土城子. …(중략)… 在八王朝江岸 被水冲埋沙中 舊露大石數丈 後爲鄉人造屋鑿取

1~1.5Km 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토성이 있었다면 이 길로 이동한 신충일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충일이 왕래하던 시기에 패왕조산성 아래에 토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패왕조산성은 고구려대에 사용된 성으로, 혼강에서 신개하의 계곡을 방어하던 중요한 성곽이다. 즉, 환인 일대에서 집안으로 향하는 교통로에 구축된 성으로 고구려의 방어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다.⁴²⁾ 이처럼 중요한 교통상의 요지라면 충분히 평지에 토성을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 일대에 환인 시가지의 下古城子城, 北甸子鄉의 喇哈城, 古城鎮의 東古城의 토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토성이 축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集安市 財源鎮 霸王村 일대의 혼강과 가까운 곳에 토성이 있었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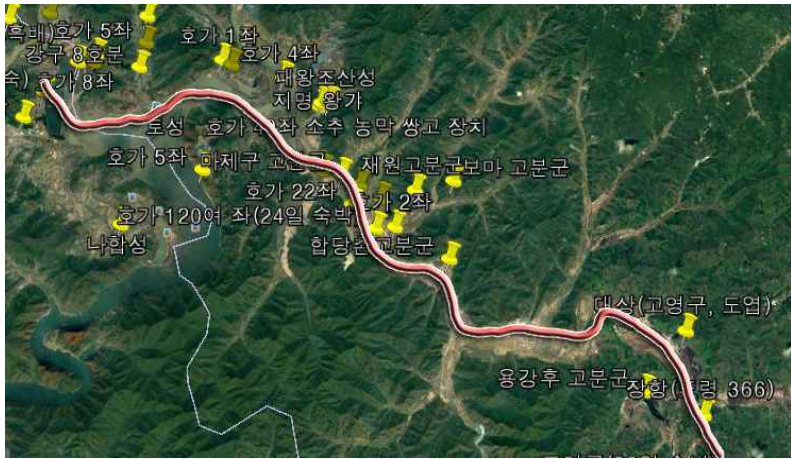
한편, 『도기』에 부기된 것처럼 당시 이 성의 추장 李大斗 등 4명은 장정 1,000여 명을 거느리고 누르하치에게 맞서 싸웠으나 결국 도망쳤다고 한다. 이것은 『청태조실록』과 부합하고, 당시 누르하치의 건주여진 통일 과정의 일환이었다.⁴³⁾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이대두 등이 1,000여

無存矣.”(劉天成, 『輯安縣志』 卷 1, 古跡, 1930)

42) 여호규, 1998, 앞의 책, 97~104쪽; 양시은, 2013, 「桓仁 및 集安 都邑期 高句麗 城과 防禦體系 研究」, 『嶺南學』 24.

43)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이미 稻葉岩吉과 三田村泰助가 자세하게 하였다. 간략히 소개하자면, 여기에 기재된 이대두는 李岱에 상응하고, 그 추장이 이씨인 것은 건주위의 초대 추장인 李滿住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稻葉岩吉, 1939, 앞의 책, 52~53쪽; 和田清, 1954, 앞의 책, 578쪽; 三田村泰助, 1965, 앞의 논문, 496~497쪽) 한편, 『政論』의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에도 이대두와 함께 누르하치에게 대항했던 李以難主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의 거주 지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는 1588년경에 만포에서 근무했던 지방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거주한 곳은 滿浦를 기준으로 西쪽으로 첫날 大嶺을 넘고, 둘째 날 中嶺을 넘어 셋째 날에 小嶺을 넘는 4일정의 거리라고 한다. 『도기』에서 그가 저항한 토성(패왕조산성 일대)은 3일 반정이었기 때문에 이 사료는 거의 일치한다고 보인다. 하지만 그의 부락은 자피선을 타고 강을 건너야 통행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패왕조산성의 건너편 일대를 지칭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한

명을 동원하여 누르하치에게 맞서 싸웠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원래 이 지역은 이대두 등의 세력 아래에 있었고, 그만큼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곳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세종, 세조, 성종대 등 15세기 중·후반기에도 건주여진의 주요 거점이었다.⁴⁴⁾ 이러한 점들을 통해 폐왕조산성 일대는 고구려대뿐만 아니라 15~16세기에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9】 12월 24~25일의 경로와 주요 거점

신충일 일행은 【그림 9】와 같이 신개하와 혼강의 합류처에서 혼강을 따라 나와 지금의 江口村과 老學堂東溝 사이에 『도기』의 伊所多川이라고 표기된 하천 방향으로 강을 건넜다. 『도기』를 보면 이소다천을 거슬러 내륙으로 가는 길과 北甸子쪽으로 부이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 표기되어 있다. 하지만 注記에 기재된 것처럼 이소다천의 길은 신충일 등이

다. (『政論』,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奎 7068))

44) 박정민, 2016, 「『征建州行軍圖記』를 통한 성종대 建州衛 정벌의 재구성」, 『역사와 현실』 99, 142~143쪽.

조선으로 돌아 올 때 들렀던 곳이고, 피알라로 갈 때는 부이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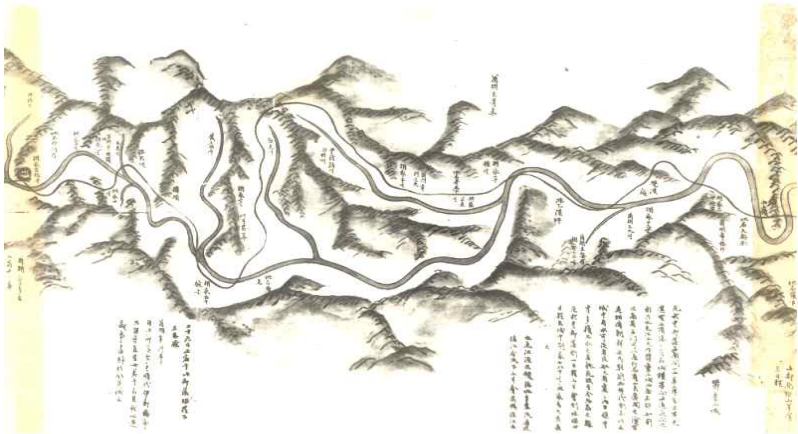
신충일 등은 부이강 연안을 따라 가다가 곧바로 羅下에서 유숙하였다. 지금은 환인댐의 건설로 신충일이 왕래했던 길은 수몰되었지만 「滿洲十萬分一地圖」 등을 참고하면 그들은 부이강 연안 길을 따라갔을 것이 확실하다. 나하의 추장은 童尼求里였고, 戰馬 50여 필을 기르고 있었다. 『도기』와 각종 지도를 참고했을 때, 나하는 현재 北甸子鄉의 北甸子鄉村 일대로 추정된다.

稻葉岩吉과 三田村泰助 역시 나하를 북전자 일대로 비정하였다. 특히, 三田村泰助는 나하의 음가 및 오녀산성을 바라보는 위치, 24일에 머물렀던 만차부락과의 거리 등을 통해 북전자 나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필자 역시 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나합성의 현재 위치는 遼寧省 桓仁縣 北甸子鄉 彎龍背村 혼강 우안의 소평원상이므로 『도기』의 나하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⁴⁵⁾ 注記를 보면, 尼求里 부락의 서남간에 유명한 석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오녀산성이다. 北甸子鄉村 혹은 黃老歲子村은 오녀산성보다 동북쪽에 있지만, 나합성은 오녀산성과 동일선상에 있기 때문에 서남쪽이 아닌 서향이 되어 『도기』의 기록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나합성에서 머무르기 위해서는 그가 이동한 동선과도 맞지 않는다.

45) 동북아역사넷(<http://contents.nahf.or.kr>)

II. 부이강 입구~퍼알라성의 경로

신충일 일행은 1595년 12월 25일에 富爾江 입구에 진입하며 본격적으로 퍼알라성까지 가는 경로를 이용하였다. 이외 혼강에서 퍼알라성으로 가는 길은 지금의 환인 시가지를 거쳐 六道溝 방면을 지나가는 것도 있다. 이 길은 심하전투에서 패전한 뒤 포로로 잡혀갔던 이민환 등이 이용했던 길이기도 하고,⁴⁶⁾ 고구려대부터 널리 이용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충일 일행은 부이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을 선택하였다.



【그림 10】 5일차 경로

신충일 등은 26일에 북쪽으로 가다가 현재의 盛家大院村에서 부이강을 건너 姜家街의 언덕(小嶺)을 넘었다. 신충일 등은 다시 부이강을 건너 夫都求(현 老黑背村)을 지나 현재의 新江村 옆에 있는 산길인 非乙(혹은 裴)漢嶺을 넘었다. 이곳을 내려오면 非乙漢坪이란 지명이 보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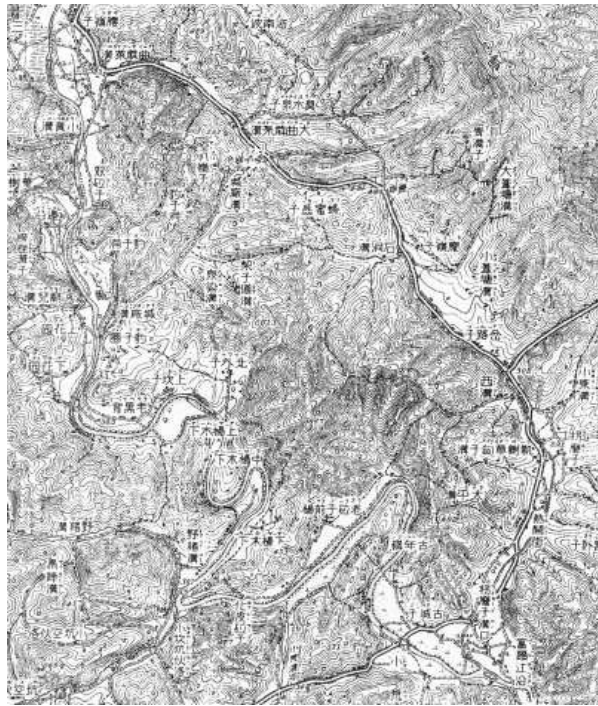
46) 이민환 지음/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앞의 책,

데, 【그림 12】와 같이 실제로 꽤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 『도기』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非乙漢嶺을 지나 북서쪽으로 가면 者未下에서 두 갈래의 길로 나누어진다. 위쪽은 于於諸川을 거슬러 올라가 胡都嶺을 넘어 喬老川을 따라 내려와 다시 부이강에 합류하는 길이고, 아래쪽은 부이강을 따라 가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稻葉岩吉은 전자의 경로를 주장하고, 三田村泰助는 후자를 지지한다. 稻葉岩吉이 자세하게 논증하지 않았지만, 대략 경로를 보면 고성진에서 북상하여 慶嶺을 넘어 북서진 하는 루트를 상정하였다.⁴⁷⁾ 반

면 三田村泰助는 王骨赤 부락을 고성진 맞은편의 현재 趙家大院 일대로 비정하고, 여기에서 高年嶺을 넘어 부이강변을 따라 올라간다고 보았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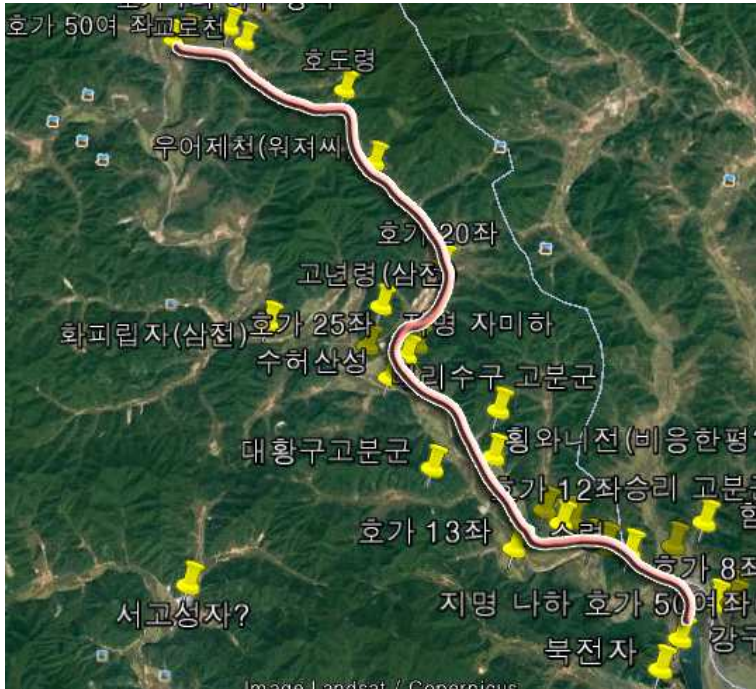
필자는 稻葉岩吉의 주장에 동의한다. 일단 『도기』의 산세와 수



【그림 11】「滿洲十萬分一地圖」의 者未下~喬老 일대

47) 稻葉岩吉, 1939, 앞의 책, <申忠一行程圖與現代實測圖對照>.

48) 三田村泰助, 1965, 앞의 논문, 110~116쪽.



【그림 12】 12월 26일의 경로와 주요 거점

계를 감안하면 자미하는 현재 古城鎮의 東古城子村 일대이다. 이곳이 ‘호가 25좌’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곳의 추장은 王骨赤이다. 그리고 부이강변으로 보이는 ‘호가 10좌’라는 곳은 현재의 西古城子村으로 보인다. 현재의 지명에서도 나타나듯이 동고성과 서고성이 위치한 곳으로, 최소한 고구려때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유리한 지역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신빈에서 부이강-신개하를 거쳐 집안에 이르는 교통로 상의 요충지이다.⁴⁹⁾

신충일 일행이 자미하에서 우어제천을 거슬러 가면 지금의 고성진을

49) 여호규, 1998, 앞의 책, 167~169쪽.

지나 拐磨子朝鮮族鎮을 거쳐 서북쪽의 鶴大線을 따라 간다. 『도기』의 童阿之夫가 20여 호를 거느리고 있는 부락은 바로 이 두 곳 중 한 곳일 가능성이 크다. 신충일 등은 다시 현재의 岔路子村에서 서북쪽의 산길로 올라가 慶嶺을 넘어 雙砬子村 일대로 내려갔다. 『도기』의 호도령이 바로 이 경령이고, 여기에서 내려와서 부이강과 합류하는 지점의 50여 호 喬老가 지금의 雙砬子村 일대로 보인다.

三田村泰助가 주장한 것처럼 부이강을 따라 가는 길은 지금도 강변 바로 옆에 간선 도로가 있다. 『도기』에서는 이 길이 호도령을 넘어가는 것보다 짧게 그려져 있다. 하지만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는 부이강을 따라 가는 길이 더 멀다. google earth로 측정하면 호도령 길은 약 21Km이지만, 부이강 길은 약 28Km이다. 즉, 신충일이 왕래한 호도령 길이 더 단거리로 당대인이 일반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림 11】과 같이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滿洲十萬分一地圖」에 이 길이 진하게 그려져 있는 점도 그 개연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 결정적으로 【그림 10】과 같이 『도기』에 신충일이 지나간 도로는 분명히 부이강변이 아니라 호도령의 고개길을 넘어간 것으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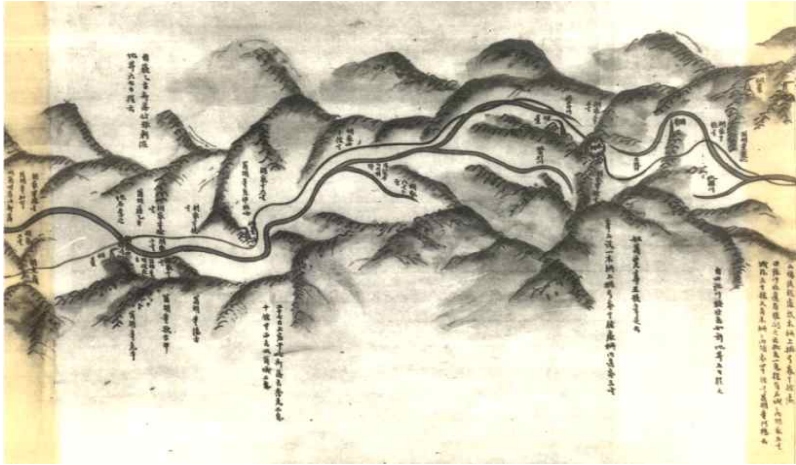
신충일은 26일에 교로에서 유숙하였는데, 이곳은 25일에 머문 나하로부터 3식정(90리)라고 하였다. 실제로 부이강 길을 이용하였다면 약 43Km이지만, 호도령 길은 36Km 정도이기 때문에 신충일의 기록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마을의 추장은 童阿斗로, 여기서부터 피알라성과 가까운 童時伐伊 부락까지 집집마다 남녀 약간 명만 남아있었고, 나머지는 피알라성에서 해가 넘도록 사역하고 있었다고 한다.⁵⁰⁾

『도기』에 의하면 役軍은 피알라성으로부터 3~4일 걸리는 부락에서 1호마다 그 男丁의 수를 헤아려 번갈아 役に 나온다고 한다.⁵¹⁾ 교로 부락

50) 一自此部落 至童時伐伊部落 家家只留守直男女若干名 其餘以過歲事 歸於奴酋城云.

51) 役軍則三四日程內部落 每一戶 計其男丁之數 分番赴役.

은 퍼알라성에서 3일 거리에 있으므로, 이 내용과 같이 교로 부락민들은 사역의 의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 6일차 경로

27일에 신충일 일행은 북진하여 黃家川과 합류하는 지금의 響水河子 鄉을 경과하여 獐項을 지나, 다시 북서진하여 彌只項을 넘었다. 이곳들은 각각 현재의 西山村과 轉水湖村 일대의 산간으로 보인다. 향수하자에서 旺清門鎮 일대로 가기 위해서는 旺雙線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지만 『滿洲十萬分一地圖』에는 미지향에 해당하는 欠石嶺의 小路가 있고, 바이두 지도 등에도 이 도로가 그려져 있다. 따라서 최소한 1930년대까지 현재의 왕쌍선보다 흙석령을 넘어가는 길이 더 선호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미지향의 뒷편에 고구려 때 이용된 전수호산성이 있다. 이것은 부이강변 일대를 공제하던 방어시설로 추정되고 부이강 상·하류 방면에 사도구산성, 흑구산성, 건설산성 등이 분포하여 이전부터 이 경로가 중요

한 교통로였음을 보여준다.⁵²⁾ 이러한 점은 고구려의 교통로 및 유적지와 당대의 유적지가 상당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신충일은 흙석령을 지나 왕쌍선과 거의 유사하게 북진하여 작은 마을 몇 개를 지나 沙河乃에 도착하였다. 사하내는 100여 호나 되는 상당히 큰 마을이었고, 피알라성으로 연결되는 산 아래에 『도기』에서 처음으로 木柵이 등장한다. 사하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기』를 다시 살펴보면, 『도기』에서 중심축으로 흐르던 강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曰彌川과 좌우측의 仇羅川이 합류한다. 현재 지형에서 이와 같은 형세를 보이는 곳은 현재의 旺淸門鎭 일대의 합류처이다.

『도기』에는 구라천이 왓미천보다 부이강에 먼저 합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실상 【그림 14】에서 확인되듯이 왓미천이 먼저 합류한다. 또한, 목책이 있는 산줄기가 부이강쪽으로 뻗어 있는데 바로 【그림 15】에서 보이는 산등성이 및 이 일대의 산줄기가 『도기』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필자는 『도기』의 사하내가 현재의 江東村 일대라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그림 14】 曰彌川과 仇羅川의 합류처(旺淸門鎭)

서쪽 왓미천과 구라천의 합류처 이전에 위치하였다고 추정한다.⁵³⁾

52) 여호규, 1998, 앞의 책, 45쪽.

53) 三田村泰助는 사하내를 향수하자로 보며, 稻葉岩吉 및 필자의 견해와 다른 루트를 상정하였다. 하지만 목책의 위치를 江東村 일대로 보며 여기서부터 같은 입장을

여기서 왈미천은 매우 중요한 지리 정보를 제공한다. 비록 왈미천은 『도기』에서 단절된 것으로 그려져 있지만 원래 부이강의 본류이다. 부이강을 따라 한쪽은 柳河 방면으로 통하고, 다른 한쪽은 通化 방면으로 이어진다.⁵⁴⁾ 현재도 왕청문진은 양자의 중요 교통로이고, 고구려 당대에도 중요 거점이었다.⁵⁵⁾

『도기』에 부기된 기록에 의하면 왈미천의 북변에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북쪽으로 5일정에 如許(Yehe)가 있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이강의 북쪽 柳河를 거쳐 약 300Km 지점인 吉林省 四平市 鐵東區 叶赫滿族鎮에 여허의 거점인 叶赫城이 있다. 따라서 이 기록은 상당히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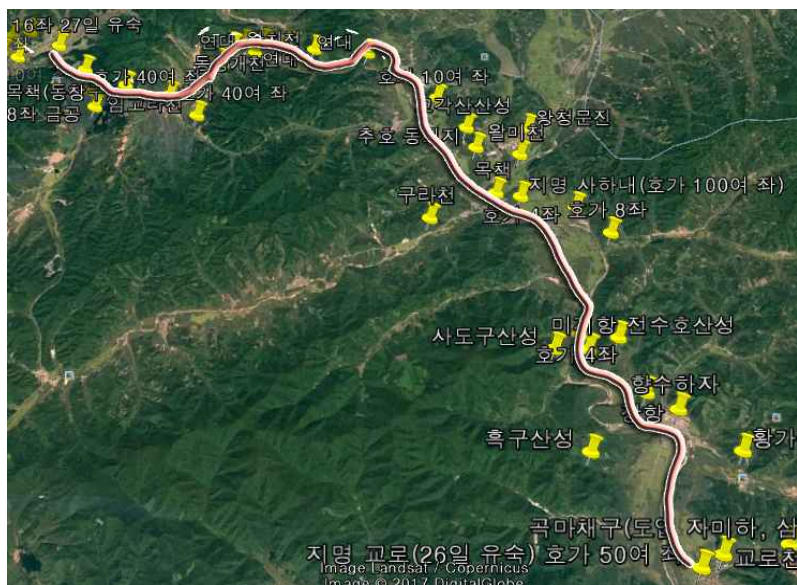
哈達(Hada)와 輝發(Hoifa) 등도 왈미천 북변의 도로를 통해 건주여진을 공격할 수 있었다. 실제로 1593년(선조 26)에 여허와 하다 등이 포함된 扈倫四部 등 9부 연합군이 누르하치를 공격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르하치는 자신의 거점을 방어하기 위해 목책과 연대 등의 시설을 확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도기』에서 왕청변문부터 목책과 연대 등의 방어시설이 급증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신충일 등은 왕청문진을 지나 王致川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중간에 연대가 있는 언덕을 넘었다. 연대가 있는 곳은 현재의 왕청문휴게소 맞은편 S10번 고속도로의 터널 일대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곳에는 北山烽隧의 유적도 남아 있고,⁵⁶⁾ 『도기』에서도 연대 옆의 산줄기를 넘어 가는 것으

보였다. 『도기』에서는 사하내와 목책의 위치는 거의 바로 옆으로 그렸으므로, 三田村泰助의 의견을 따른다면 사하내와 목책의 위치는 약 10Km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그가 상정한 자미하부터 사하내의 위치를 인정한다면 거리가 너무 짧다는 문제점도 나타난다.

54) 특히, 부이강의 지류인 三棵榆樹河의 依木樹古城, 南台古城, 太平溝門古城 등은 부이강 상류에서 통화현성으로 나가던 교통로와 관련된 군사시설이다.(여호규, 1998, 앞의 책, 45쪽)

55) 三田村泰助, 1965, 앞의 논문, 116~118쪽; 기경량, 2016, 앞의 논문, 244~24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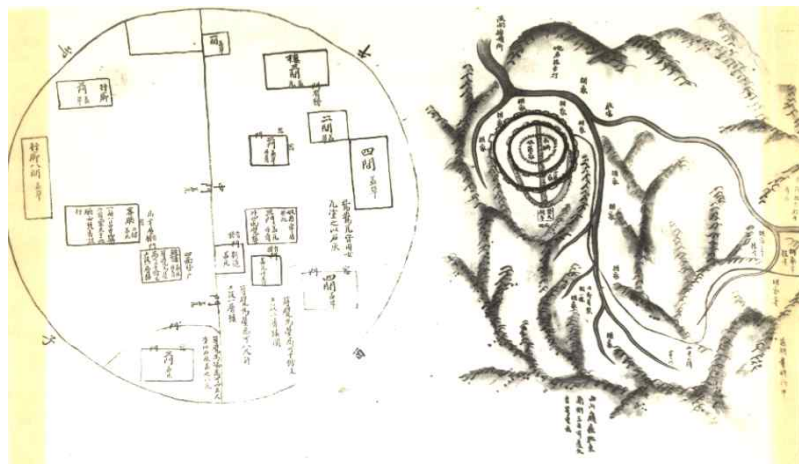


【그림 15】 12월 27일의 경로와 주요 거점

로 표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40여 호의 마을이 보인다. 이는 현재의 舊門朝鮮族村이고, 그 연결로는 신빈쪽으로 향하는 구도로인 沈通線(S104)이다.

구문조선족촌 바로 뒤 산줄기의 목책을 넘으면 왕치천의 수계와 달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도기』는 이를 하나의 산줄기로 표현하였고, 注記에 봉우리 위에 목책을 설치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예전부터 신빈 일대에서 부이강으로 왕래하는 주요 도로였다. 따라서 건주여진도 이곳에 목책을 두고, 방어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길을 따라 조밀한 지역에 연대를 두 개나 설치하였다.⁵⁷⁾ 이러한 점은 이곳이 교통상의 요지이자 군사적

56) 北山烽燧址는 원형의 土臺로 높이 2.5m, 底部의 直徑은 8m이다. 또한, 여기서 서북쪽으로 800m 방면에 高台山烽燧址 유적도 있다.(國家文物局 主編, 2008, 『中國文物地圖集』(遼寧分冊 下), 西安地圖出版社, 133쪽)



【그림 16】 7일차 경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신충일 등은 同相介川이라는 냇가를 따라 내려와서 지금의 東昌台 혹은 南蜂蜜溝村 일대의 남동쪽에서 흐르던 하천과 합류하는 곳에 이르는 데, 그 이름은 林古打川이다. 양 하천의 합류처에 지금은 紅升水庫(저수지)가 있지만, 『滿洲十萬分一地圖』를 보면 저수지가 없었고, 협곡이 있었다. 이 水系는 蘇子河의 상류이다.

신충일 일행은 소자하를 따라 내려가다가 童豆伊致哈의 마을에서 유숙하였다. 현재의 지형과 거리를 감안하면 이곳은 현재의 紅升鄉 일대로 추정된다. 『도기』에서 童豆伊致哈의 마을 바로 뒤 산줄기 끝에 있는 연대와 실제 지형이 일치한다. 注記에 의하면 이곳은 교로로부터 2식 10여 리(70리)이고, 피알라성까지 2식(60리)라고 하였다. 교로에서 여기까지 약 33Km이고, 피알라성까지 약 29Km인 점을 고려하면 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율은 어느 정도 일치한다.

57) 『건주탐정기축』에는 연대가 1개이지만, 다른 판본에서는 2개씩 있다.

28일에 신충일은 蘇子河를 따라 내려갔다. 그런데 얼마가지 않아 신충일은 厚之라는 곳에서 갑자기 서남진하여 산길을 향하였다. 일단 후지는 지금의 白旗村 일대이다. 이곳에서 퍼알라성이 있는 永陵鎮의 二道河子村으로 가려면 지금의 新賓滿族自治縣을 지나가는 S10번 고속도로나 沈通線(S104)을 이용한다. 이 길은 소자하변을 따라 가기 때문에 평탄하고, 접근성이 좋다. 그러므로 이미 고구려대부터 撫順에서 영릉진-왕청문-소자하-부이강-신개하-집안, 혹은 무순-영릉진-왕청문-통화-위사하-집안 등의 교통로가 발전하였다.⁵⁸⁾

그렇다면 신충일 일행은 왜 소자하를 따라가는 평탄한 길이 아닌 산길을 택했을까? 더욱이 그 시기는 음력 12월 말로 그가 넘었을 胡老嶺과 小里嶺은 눈이 쌓여 왕래가 불편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길을 인도했던 童女乙古 등의 의도 혹은 이들에게 명령을 했던 누르하치와 같은 건주여진 지도자의 의지가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기』를 보면, 紅升鄉에서 白旗村⁵⁹⁾까지 불과 2Km 사이에 무려 6개의 마을이 조밀하게 분포한다. 27일에 신충일 일행이 유숙했던 현재의 홍승향에서 백기촌까지 2좌, 10좌, 20좌(2개), 40여 좌의 5개 마을이 있고, 각 마을마다 추장이 있었다. 또한, 신충일은 조선 건국 이후 공식적으로 이 일대를 처음으로 왕래했던 인물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신충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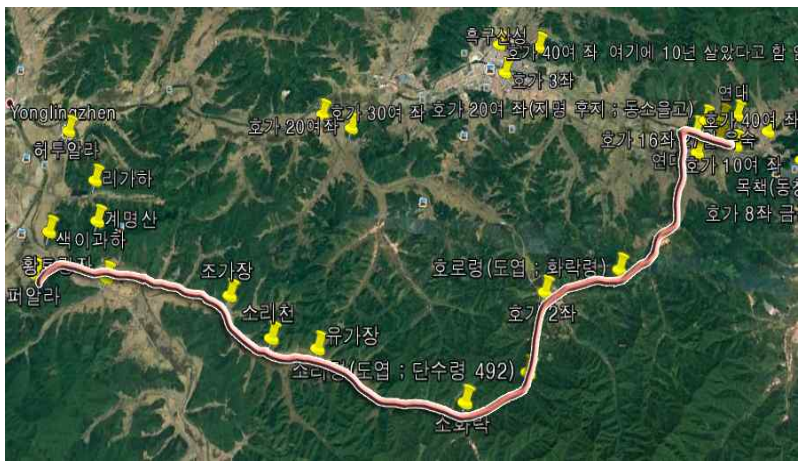
58) 이와 같은 교통로는 4세기 초반(342년) 전연은 고구려를 침공하였는데, 이때 남도와 북도를 이용하였고, 여기에 관련된 교통로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남도, 북도의 실체와 관계없이 상당한 학자들은 위의 루트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는 다음의 논문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공석구, 2007,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15, 77~78쪽; 정원철, 2011, 「고구려 남도·북도와 고구려 산성의 축성」, 『동국사학』 30, 8~12쪽; 기경량, 2016, 앞의 논문, 245~247쪽)

59) 紅升鄉 白旗村 서북쪽 500m 지점에 縣文物保護單位로 지정된 白旗城이 있다. 이곳은 1960년대까지 높이 3m의 토벽이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中國文物地圖集』에 의하면 이곳을 漢代의 성으로 비정하였으나, 이후에도 연용되었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한다.(國家文物局 主編, 2008, 앞의 책(下), 133쪽)

행의 여정은 향도 역할을 했던 童女乙古와 童復應古에게 좌우된다. 앞서 보았듯이 현재의 왕청문진 일대부터 목책과 연대 등 방어시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홍승향부터 건주여진의 마을 수가 급증한다.

『도기』에 의하면, 지금의 신빈현 시가지 부근에 童加可가 주장으로 있는 40여 호의 부락에서 누르하치가 10년 간 세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⁶⁰⁾ 『만주실록』, 『청태조실록』 등 청초의 자료에도 누르하치의 6祖(누르하치의 증조 福滿 소생의 6명의 아들)가 신빈현에서 영릉 일대를 중심으로 거주하였다고 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 일대에 누르하치 시기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溫家窩南山城址, 達子營城址 등 여러 성의 유적이 남아 있다.⁶¹⁾

이외에도 이곳이 가지는 교통의 위상을 주목할 수 있다. 소자하 일대에 한, 고구려, 금 등의 유적이 산재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⁶²⁾ 신빈 일대



【그림 17】 12월 27일의 경로와 주요 거점

60) 胡家四十餘座 酋胡童加可 一奴酋世居此部落 今移林古打十年云.
 61) 張德玉 等, 1996, 『“寧古塔”與六祖城考辨』, 『遼海文物學刊』 1996年 第01期.
 62) 國家文物局 主編, 2008, 앞의 책(下), 132~135쪽.

에 누르하치 휘하의 많은 마을뿐만 아니라 연대, 목책, 성곽 등의 군사적 방어시설이 더 조밀하게 분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누르하치와 같은 건주여진의 지배자들은 신충일 등에게 굳이 자신들의 핵심 방어 시설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향도인 童女乙古와 童復應古에게 백기촌에서 급격히 방향을 틀어 산길로 진입하도록 명령했다고 보인다.

신충일 일행은 후지에서 서남쪽의 길을 따라 胡老嶺이라는 고개를 넘어갔다. 이 고개길은 선형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滿洲十萬分一地圖』에서 伙洛嶺이라고 부르던 곳으로,⁶³⁾ 현재의 媽媽伙洛村에서 東溝를 거쳐 大塊地村으로 가는 고갯길이다. 『도기』에서 ‘胡家二座’라고 기록된 곳은 현재의 大塊地村 일대라고 생각한다. 『도기』에 기록된 신충일이 지나가는 길과 여기에서 남쪽으로 흘러가 소자하에 합류하는 하천을 본다면 그 양상은 더욱 뚜렷하다.

신충일은 지금의 堂房溝 방면으로 하천을 거슬러 올라 가다가 小里嶺을 넘어 小里川으로 향한다. 稻葉岩吉이 고증한 것처럼 소리천은 『태조무황제실록』과 『청사고』 등에 등장하는 索爾科河, 首里口의 이름이 轉音된 것으로 보인다.⁶⁴⁾ 여기에 대입하면 소리천의 상류에 있는 소리령은 현재의 椴樹嶺에 해당한다. 신충일은 비록 일반적인 교통로인 소자하 강변의 길을 이용하지 못하였지만, 호노령과 소리령을 넘으며 멀리서 소자하의 위치를 파악하고 『도기』에 그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충일은 이 부분의 산천 및 원근감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하고, 대략적인 형태만 그린 것이다. 신충일은 소리령을 넘어 소리천에 접하는 지금의 大央 일대로 내려왔을 것이다. 그는 이 하천을 따라 여러 마을을 거쳐 드디어 목적지인

63) 稻葉岩吉, 1939, 앞의 책, <申忠一行程圖與現代實測圖對照>; 三田村泰助, 1965, 앞의 논문, 126~129쪽. 여기서부터 소리령, 소리천을 거쳐 피알라에 이르는 노선 및 구체적인 고증은 稻葉岩吉와 三田村泰助의 의견과 같다.

6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稻葉岩吉, 1939, 앞의 책, 21~25쪽 참조. 三田村泰助 역시 이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였기 때문에 소리령의 어원 등은 재론하지 않겠다.

피알라성에 도착하며 누르하치와 본격적인 교섭을 시작하였다.⁶⁵⁾

맺음말

지금까지 임진왜란 중에 건주여진의 누르하치에게 다녀왔던 신충일이 작성한 『도기』에 관심을 가진 연구는 많았다. 하지만 그가 이동한 경로를 밝힌 연구는 稻葉岩吉와 三田村泰助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이견이 있고, 구체적으로 지도에 표기하지 않아서 그 경로가 정확하다고 할 수 없었다.

일단 만포에서 당시 누르하치가 거주했던 피알라성으로 가는 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집안에서 葦沙河를 따라 通化로 가서 동쪽으로 꺾어 왕청변문에서 소자하를 따라 피알라로 가는 것이다. 둘째, 집안에서 小板嶺을 넘어 신개하를 따라 혼강의 합류처까지 가서 북으로 부이하를 거슬러 올라가다가 소자하를 따라 피알라에 이르는 길이다. 셋째, 집안에서 소판령, 신개하, 혼강의 합류처에서 서남쪽의 환인 방면으로 나와 육도구 방면으로 북상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집안에서 압록강을 따라 서남쪽으로 내려오다가 凉水鎭에서 북향하여 二道甸子를 경유하여 환인으로 가서, 육도구를 지나 피알라성에 가는 경로이다. 이외에 작은 도로를 이용하는 가능성까지 상정하면 경우의 수는 더욱 증가한다.

본고에서는 더욱 정확하게 신충일 등이 왕래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즉, google earth와 「滿洲十

65) 신충일은 소리령을 넘기 전에 대부분 부락의 戶數를 기재했던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胡家’라고 하여 부락의 호수를 적지 않았다.

萬分一地圖」 등의 지도 및 중국에서 발간된 각종문물지를 이용하여 신충일이 『도기』에 기재한 유적지와 지형 등을 비교 검토하여 왕래한 도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조선과 건주여진의 교통로를 복원할 수 있었다.

신충일은 선조로부터 누르하치와 교섭하라는 명령을 받고 1595년(선조 29) 12월 21일에 만포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그는 향도인 梨坡의 추장 童女乙古와 童愼應古를 따라 鄉通事 나세홍, 하세국, 만포진의 奴 강수, 자신의 奴 춘기와 함께 현재의 만포역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넜다. 이들은 압록강변을 따라 서진하다가 麻線鄉에서 서북진하여 麻線鄉 半載溝(者皮洞) 일대에서 노숙하였다.

23일에 신충일 일행은 小板嶺(蔓遮嶺)을 넘어 新開河를 따라 서북진하였다. 중간에 고구려대의 關隘인 望波嶺關隘(獐項)를 지나 현재의 荒歲子村(古營丘)에서 유숙하였다. 24일에 이들은 북향하여 현재의 財源鄉(蔓遮 부락)에 머물렀다. 25일에 신충일 등은 다시 신개하를 따라 서북진하여 渾江과 합류처에 이르렀다. 신충일은 霸王朝山城 근처에 土城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현재 이곳에 토성이 없어서 혼란이 있지만, 1930년에 발행된 『輯安縣志』를 보면 토성이 있었다고 하므로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신충일 등은 강을 건너 桓仁縣 北甸子鄉(羅下)에서 유숙하였다.

신충일 일행은 26일부터 富爾江의 수로를 따라 퍼알라로 출발하였다. 그들은 盛家大院村에서 강을 건너 현재의 姜家街의 언덕(小嶺)을 넘었다. 이후 老黑背村 등을 지나 현재 古城鎮 東古城子村(者未下)에서 拐磨子朝鮮族鎮을 거쳐 慶嶺(胡都嶺)을 넘어 雙砬子村 일대의 喬老에서 유숙하였다. 27일에 이들은 북진하여 響水河子鄉, 旺淸門鎮 일대를 지나 현재의 왕청문휴게소 맞은편 S10번 고속도로가 있는 舊門朝鮮族村에서 新賓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신충일 등은 이후 紅升鄉 일대에서 유숙하였다.

28일에 신충일 일행은 蘇子河를 따라 내려가다가 白旗村(厚之)에서 방향을 바꾸어 산길로 진입하였다. 그리고 胡老嶺을 넘어 大塊地村을 지나 檜樹嶺을 넘어 大央 일대로 내려와 小里川을 따라 𪗇알라성에 도착하였다.

신충일이 왕래한 도로를 밝히는 것은 단순히 임진왜란 당시의 교통로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약 200년 동안 건주여진의 중심지가 환인, 신빈 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만포에서 신빈까지의 정확한 교통로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 신충일이 왕래한 도로를 기준으로 이전의 기록들을 재구성하여 조선의 만포, 초산, 벽동 등 압록강 중류에서 건주여진으로 가는 길을 밝힐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세종, 세조, 성종대의 총 4차에 걸친 건주여진 정벌 경로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주목할 점은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毋丘儉紀功碑, 망과령관애, 패왕조산성, 전수호산성, 白旗城⁶⁷⁾, 𪗇알라성 모두 고구려대에 이용하였던 유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로가 고구려의 교통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일부 유적은 조선 중기까지 연용되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여러 의견으로 나누어진 4세기 고구려의 남도·북도를 비롯한 교통로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지역에 대한 통시적 연구의 일단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단지 임진왜란 당시의 이동로뿐만 아니라 고구려부터 현재까지 압록강 이북 지역에 대한 공간의 재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6) 이 연구를 기반으로 임진왜란기 이전 만포 주위의 여진인 거주지 복원 등도 더 정밀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는 별고를 준비 중이다.

67) 백기성은 白旗堡古城이라고도 하는데, 고구려대의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고 규모도 작으며 방어에 취약한 소형 평지성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인의 재사용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있다.(여호규, 「高句麗 後期の 軍事防禦體系와 軍事戰略」 『韓國軍事史研究』 3, 1999)

참고문헌

1. 사료

- 『조선왕조실록』
『政論』, 「滿浦鎮胡地相距部落多少與擄情抄記」(奎 7068)
『建州紀程圖記』
『建州探情記軸』
『만주실록』
『청태조무황제실록』

2. 논저

- 劉天成, 1930, 『輯安縣志』 卷 1, 古跡
稻葉岩吉, 1939, 『興京二道河子舊老城』, 建國大學校出版部
和田清, 1954, 『東亞史研究(滿洲編)』, 東京國立書院
이인영, 1954, 『韓國滿洲關係史의 研究』, 을유문화사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1983, 『集安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纂委員會
남영우, 1997, 『舊韓末 韓半島 地形圖 : 1:50,000』, 성지문화사
여호규, 1998, 『高句麗城 I - 鴨綠江中上流篇』, 國防軍史研究所
國家文物局 主編, 2008, 『中國文物地圖集』 (遼寧分冊 下), 西安地圖出版社
한성주, 2011, 『조선전기 수직 여진인 연구』, 경인문화사
패멀라 카일 크로스리(Pamela Kyle Crossley) 著 / 양휘웅 역, 2013, 『만주족의
역사 : 변방의 민족에서 청 제국의 건설자가 되다』, 돌베개
이민환 지음 /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1619년 심하 전쟁과 포로수용소
일기: 책중일록』, 서해문집
鳥居龍藏, 1914, 「丸都城及び國內城の位置に就よきて」 『史學雜誌』 25-7
稻葉岩吉, 1937, 「申忠一書啓及び圖記」 『靑丘學叢』 29

- 旗田巍, 1940, 「滿洲八旗の成立過程に關する一考察」 『東亞論叢』 2
- 安部健夫, 1971, 「八旗ニルの研究」 『清代史の研究』, 創文社
- 江嶋壽雄, 1944, 「明末滿洲におけるガシヤンの諸形態」 『史淵』 32
- 江嶋壽雄 1952, 「勅書(エジェヘ)と屯莊(トクソ)-清朝勃興期の社會經濟史的概觀-」 『西日本史學』 2
- 三田村泰助, 1961, 「朝鮮側史料より見た清初の疆域」 『朝鮮學報』 21·22
- 三田村泰助, 1965, 「清初の疆域 續-申忠の建州紀程図記を中心として-」 『朝鮮學報』 36
- 유지원, 2004, 「누르하치 興起時期 都城에 나타난 滿·漢文化의 相互作用」 『명청사연구』 22.
- 劉廣銘, 2004, 「《建州紀程圖記》中的女真人形象」 『東疆學刊』 2004年第04期
- 공석구, 2007, 「고구려와 모용 ‘연’의 전쟁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15
- 김선민, 2008, 「명말 요동지역을 둘러싼 명-후금-조선의 삼각관계」 『중국사연구』 55
- 정원철, 2011, 「고구려 남도·북도과 고구려 산성의 축성」 『동국사학』 30
- 刁書仁, 2011, 「朝鮮使臣所見의建州社會-兼論後金建國前與朝鮮의關係」 『滿族研究』 2011年 第02期
- 조법중, 2013, 「고구려 국내성의 공간과 광개토왕릉-지도와 능비문을 중심으로」 『광개토왕비의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 양시은, 2013, 「桓仁 및 集安 都邑期 高句麗 城과 防禦體系 研究」 『嶺南學』 24
- 閔家禎, 2014, 「《建州紀程圖記》 文獻學研究」 『蘭州教育學院學報』 2014年第07期
- 박정민, 2015, 「15세기 후반 建州女眞의 생존 전략-조·명 연합군의 정벌과 영향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4
- 기경량, 2016, 「4세기 고구려 '南道·北道'의 실체와 그 성격」 『한국문화』 73
- 박정민, 2016, 「『征建州行軍圖記』를 통한 성종대 建州衛 정벌의 재구성」

『역사와현실』 99

장정수, 2016, 「16세기 말-17세기 초 조선과 건주여진의 배후 교섭과 신충
일의 역할」 『한국인물사연구』 25

박정민, 2016, 「조선 중기 武將 최호의 북방 활동」 『백산학보』 105

Abstract

The reconstruction of transport routes to JianzhouJurchen during the Imjinwaeran from the Analysis of Jianzhougichengtuj

Park, Jung Mi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raveling routes taken by Shin Chung il(申忠一) to travel between Joseon(朝鮮) and JianzhouJurchen(建州女眞) during the time of Imjinwaeran(壬辰倭亂). To do so, we closely examined Jianzhougichengtuj(建州紀程圖記) that Shin Chung il wrote after his visit to FeAla(佛阿拉), to reconstruct his traveling route and plot the route on the map.

This would help to identify not only his traveling route but also the name of the surrounding areas, their relationship to Korean history, as well as how political influence of JianzhouJurchen was dispersed in the area. Further, we attempt to elucidate how the route is linked to transport routes of Goguryeo(高句麗) both in temporal and spatial aspects. This effort is expected to provide guidance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seon and Nurhaci(努爾哈赤) during the time of Imjinwaeran and to studying transport routes of Joseon beyond its border.

Keywords : Imjinwaeran, Shin Chung il, JianzhouJurchen,
Jianzhougichengtuj, Nurhaci, transport routes,
Koguryo, South route, North route, google earth